

예방 중심 노인 구강보건사업 강화

전주시보건소, 노인 방문구강관리·치매안심치과 연계 통해 건강한 노후 지원·구강 질환 예방

전주시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예방 중심의 노인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과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노인 방문구강관리사업'과 치매안심치과 협약 연계사업을 중심으로 예방 중심 구강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가파른 고령화 속 치아 상실과 구강질환은 영양 불균형과 저작기능 저하뿐 아니라 전신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 등 노년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구강건강은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도 밀접

해 체계적인 예방과 지속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거동이 불편하거나 스스로 구강 관리가 어려운 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노인 방문구강관리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가정과 시설을 방문해 구강 상태를 점검하고, 구강 위생 관리 교육과 틀니 관리, 구강건조 예방, 구강 마사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방문 구강 관리 과정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과치료기관과 연계해 적절한 치료와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는 전주시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구강 건강관리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치매환자의 경우 스스로 구강 관리가 어려워 충치와 치주질환 위험이 높고, 구강건강 악화가 영양상태와 전신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치매 노인의 구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인지 수준에 맞는 구강 관리 및 보호자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또, 치매환자의 원활한 치료와 진료 지원을 위해 지역 내 27개 치매안심치과와 연계하여, 치료와 예방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노인의 치과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인 의치 및 임플란트 지원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는 전주시치과의사 및 협약 치과치료기관과 협력해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게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시민들의 구강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방문 구강관리사업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어린이·청소년 대상 구강 교육 및 불소도포 사업 등 생애 주기별 예방 중심 구강보건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예방 중심 구강보건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24년 구강보건사업 우수기관 표창, 2025년 치질실질 실천을 개선 사례 질병관리청장 표창, 2026년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3년 연속 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성과를 인정 받기도 했다. /권희성 기자

인권존중 경영 실천 빛났다

전북개발공사,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6년 연속 유지

전북개발공사가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6년 연속 유지하며 인권존중 경영 실천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는 지난달 29일 한국경영인증원(KMR)의 심사를 통과해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기관이 경영활동 전반에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정책을 반영하고,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공사는 2021년 최초 인증 취득 이후 매년 인증을 유지해 왔으며, 이번 심사에서는 인권경영 정책의 수립부터 실행, 점검, 개선에 이르는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

았다.

그동안 전북개발공사는 인권경영 현장 제정과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 구제 절차 운영,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강화, 인권교육 확대 등 다양한 인권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지역사회 구성원까지 아우르는 인권존중 경영체계를 구축하며 ESG 경영 실천에도 힘써 왔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및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 고객 및 협력업체 권익 보호 등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상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선거 투·개표소 전기안전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맞아 전국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특별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선거 환경 조성에 나섰다.

공사는 선거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전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전국 1만8천여 개 선거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선거를 하루 앞둔 이날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투표소와 전주화산체육관 개표소를 방문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맞아 전국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특별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선거 환경 조성에 나섰다.

전기안전관리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전기사고로 인한 투·개표 업무 차질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가 주요 행사인 지방선거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 임직원들은 투표소와 개표소 내 주요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무정전원장치(UPS) 등 비상전원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선거 당일 전국 240개 개표소와 선거상황실에 전문인력 458명을 배치해 전기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달 27일 올해 처음 글로벌강소기업에 선정된 지노모터스를 방문해 지정서 수여와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전북 수출 이끌 글로벌강소기업 15개사 선정

전북지역 수출을 이끌어갈 글로벌강소기업 15개사가 새롭게 선정됐다. 중동전등 대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기술력과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설 중소기업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6년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선정된 도내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서와 현판을 직접 전달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강소기업은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 가운데 성장 가능성과 해외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수출 규모에 따라 유망·성장·강소·강소+ 기업으로 구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KOTRA 등 23개 수출지원기관이 해외 마케팅과 수출금융, 컨설팅 등 다양한 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전북지역에서는 철도차량 부품 제조기업인 벽진(주)를 비롯해 김 제조업체 에스디디(주), 바이오디젤 및 항공용 생산기업 (주)다시, 특수목적차량 제조기업 지노모터스 등 총 15개 기업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강소·강소+ 기업으로 선정된 비나텍(주), 다산기공(주), 에스디디(주), (주)다시, 지노모터스는 에너지·방산·식품·모빌리티 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올해 1분기 전북 수출 18억 달러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중기청은 지난달 27일 올해 처음 글로벌강소기업에 선정된 지노모터스를 방문해 지정서 수여와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앞으로도 선정 기업들을 직접 찾아 지정서 전달과 함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연구원, AI 활용 연구보고서 영상 공개

국민연금연구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연구성과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며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2일 '알기 쉬운 국민연금 연구보고서' 영상 6편과 2025년 연구보고서 39종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구보고서는 책자 형태로만 제공돼 전문용어가 많고 분량이 방대해 일반 국민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연구원은 연구성과를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전달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을 추진했다. 이번에 공개된 '알기 쉬운 국민연금

연구보고서'는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구성됐다. 복잡한 통계 수치와 연구 결과를 시각적으로 구현해 국민들이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영상은 올해 국민연금연구원이 수행한 연금제도, 재정추계, 기금정책 분야 연구 39건 가운데 국민 관심이 높은 6개 주제를 선정해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고용연장 시대의 국민연금제도 개선 과제', '국민연금이 소비 불평등을 완화하는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의 성과 평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구 과제들이다. /오상근 기자

전주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30일까지 운영

전주시는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기존 등록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함이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 내에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이미 등록을 마쳤더라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동물의 분실하거나 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6월부터는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동물생산업자가 그 영업장(단독주택은 제외)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는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전주지역 41개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되며, 주소나 연락처 등 단순 변경 사항은 정부24나 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다. /권희성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